



사회진보연대가 만든

# 여성노동자 권리선언 해설서



제2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여성노동자 권리를 말하다**

# 발간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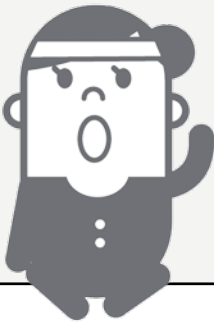
**먹고** 살기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물가가 올라 시장에서 장 보기가 무섭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노력하지만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습니다. 일터에서는 남편이 버니까 여자는 임금이 적어도 된다는 식이고 비정규직도 감지덕지하라고 합니다. 집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를 키우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은 여전히 여성의 몫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성을 돕겠다며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럽습니다. 여성은 당연히 집안일 해야 하니 비정규직이 적합하다며, 저임금의 파트타임 일자리나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제위기가 길어지고 심해질수록 자본과 정부는 여성에게 더 낮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를 강요할 것입니다. 또 보육, 간병 등의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출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자의 가정에서 알아서 가족을 돌보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말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여성들에게, 여성이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단결 투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또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해서 서로의 문제를 모두 알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하는

일이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며, 고용형태도 다른 여성들이 저마다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은 여성 조합원은 요즘 젊은 세대의 여성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둘러업고 다니면서 시부모님 간호하고 돈도 벌었는데 지금은 살기 편해졌다는 생각에 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절실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성 조합원들은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면 안심이 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조합원들은 마트나 백화점이 밤새도록 영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성 조합원들이 권리를 요구할 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성의 권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지만 여성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각자의 권리를 말하고 교류하며 이해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로 기획된 여성조합원대회를 시작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단결해 나갑니다. 이 『권리선언 해설서』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의 상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여성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당당한 노동운동의 주체이자 세상의 주인임을 알리고 권리를 쟁취해 가는 길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1. 12. 17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가 만든

# 여성노동자 권리선언 해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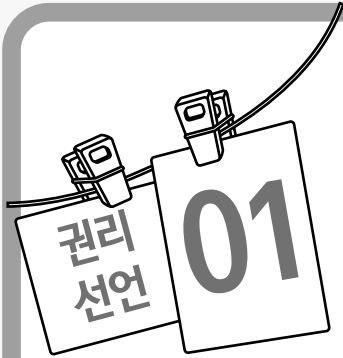
## 글 읽는 순서

### 권리목록 해설

1. 여성노동자는 잘릴 걱정 없이,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07
2. 여성노동자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10
3. 여성노동자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13
4. 여성노동자는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17
5. 여성노동자는 노동자이자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21
6.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의 자유를 가지며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24
7.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뭉치고 대표할 권리가 있다 27

### 지상 증계

-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집담회’ 현장스케치 30



## 여성노동자는 잡릴 걱정 없이, 충분한 임금을 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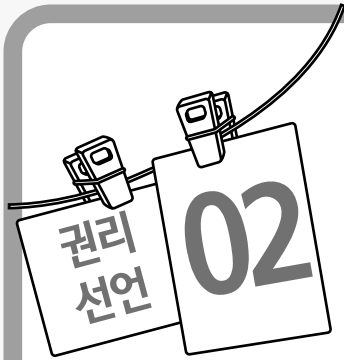
여성노동자로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비율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임금은 또 어떨습니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는 정규직 자리에 갈 기회도 있었지만 아이 낳고 키우다가 다시 취업하려면 비정규직 말고는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이 버니까 아줌마는 반찬값만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대우하고, 부당하게 해고해 놓고서도 나 몰라라 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쉬운 일일까요?

학교급식 노동자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급식 노동자가 국자를 놓고, 주걱을 놓는다면 학생들은 밥을 먹을 수 없겠지요. 학생들이 밥

먹고 건강하게 공부하는 데 있어 학교급식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노동조건은 엉망입니다. 무거운 숟을 나르고, 뜨거운 불에 음식을 삶고 볶고 하느라 골병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밥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무시하고, 10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에 만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쉽게 해고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 여성은 남편의 수입을 보충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집에서 돈 안 받고 하던 일을 나와서 돈 좀 받으면서 하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여성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다 보면 ‘여자로 괜히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나이에 다른 데 갈 수도 없는데 꼭 참고 버티자’라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목소리 높이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잘릴까 봐 조마조마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기 위해 뭉쳤습니다.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으니 학교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반찬값만 받아서는 살 수 없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의 당찬 목소리에 세상이 놀랐고 귀를 기울였으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서고 요구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잘릴 걱정 없이 충분한 임금을 권리가 있다고 요구합니다. 단결해서 쟁취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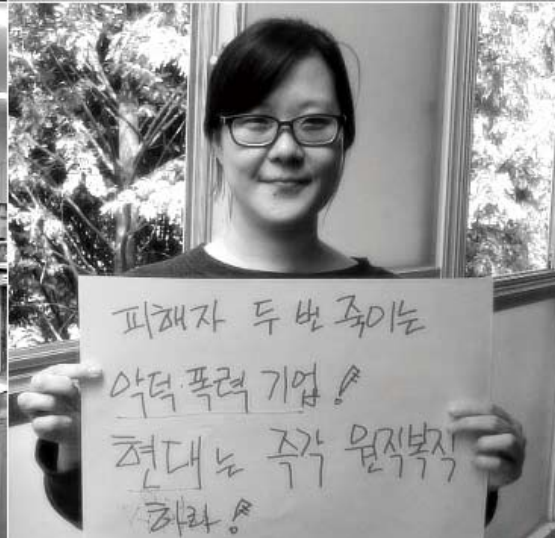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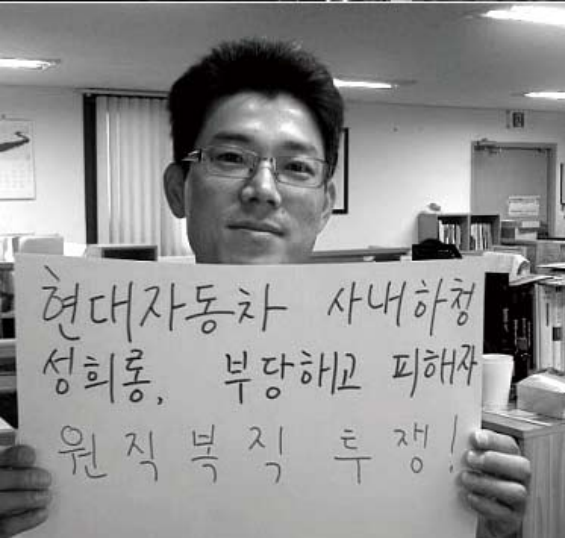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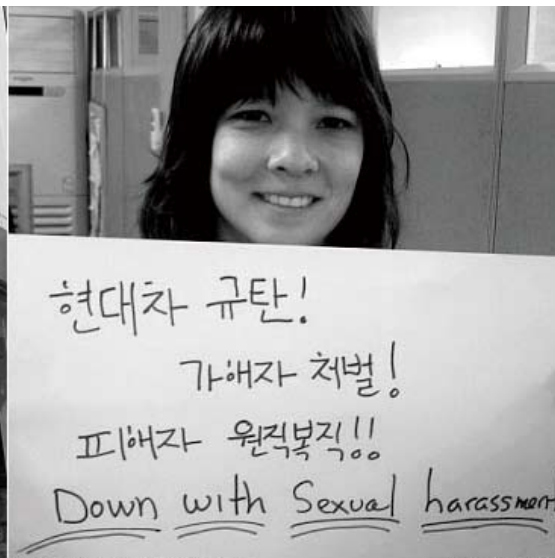
## 여성노동자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오른다고 여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성은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에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는 주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성폭력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형태의 강간 같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 성희롱의 문제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기 어렵게 합니다.

직장에서 같은 노동자이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곤란이 바로 그러한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희롱입니다. 이는 특히 고용관계의 불안정함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아산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한 여성노동자는 소장과 조장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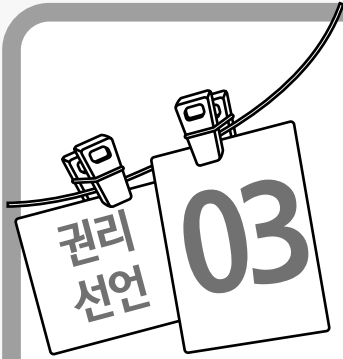
참다 못한 피해 여성노동자는 동료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했다가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노동자가 항의하자 결국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또 청소노동자의 경우에는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무기로 성희롱을 하거나, 일상적으로 음식 접대와 술 접대를 강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하는 비정



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유리벽 안에서 발매를 할 때 손님들이 손을 덥석덥석 잡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을 때 손님들이 엉덩이나 다리를 만지는 일을 허다하게 겪습니다. 상습적인 고객에 대해 격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속적으로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이렇게 여성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자신을 몸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폭력을 언제까지나 참고 견딜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여성노동자는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면서 노조에 가입했고, 1년여의 투쟁 끝에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산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투쟁한 결과 며칠 전 피해 여성노동자는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는 징계 해고되는 승리도 얻어냈습니다. 또 “노조가 만들어지고 가장 좋아진 건 일상적인 성희롱이 없어진 것”이라는 한 청소노동자의 말처럼 변화의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임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성노동자는 현대차 아산공장의 여성노동자나 청소노동자의 사례처럼 자신의 몸을 타인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 여성노동자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에서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노동자에게 집은 편히 쉴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일터입니다. 높은 물가, 낮아진 임금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당연히 집안일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일까요? 예로부터 여자는 묵묵히 집안일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게 미덕이라고 여겨지기는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거나 직업을 갖고 싶어도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안 되니 집안일이나 하라는 비난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많은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고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일이나 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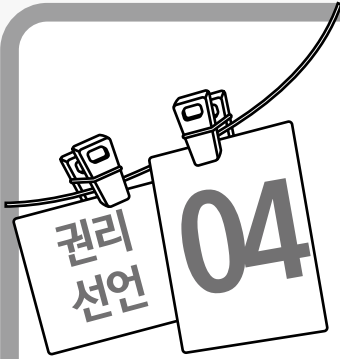


여성에게는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노동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만큼, 여성과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직업으로 가진 여성들을 무시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많은 여성이 식당에서 조리와 보조업무, 병원과 요양원에서 노인과 환자를 간병하는 일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성이 집에서 돈 안 받고 하던 일이므로 밖에서 하는 것 역시 뭐가 어렵겠냐며, 임금이 적고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타고난 천성인 모성과 돌봄정신,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이므로 돈을 적게 주고 부려 먹어도 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천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받는 임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것이지요.

간병, 요양, 보육 등의 돌봄노동은 결코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보다 더 많이 일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성애’나 ‘돌봄 정신’을 운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또한 엄연한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어떤 일을 할지 여성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이 여성의 천직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도 각각 추구하는 삶과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연장에 있는 일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한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노동이고 큰 동력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돌봄과 가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노동자는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구호처럼,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쓸 때까지 쓰다가 고장나면 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월급을 준다고 자본가가 마음껏 부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며 몸을 다치고, 상하고, 골병이 든다고 나 몰라라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성노동자가 하는 일이 주로 집에서 하던 일의 연장이라서 일하기 쉬울 거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노동자가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여성노동자가 하는 일도 힘들고 위험해서 여성노동자가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간병노동자는 하루 24시간, 주 6일 동안 연속으로 환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안구건조증이 흔하고, 과체중

환자나 무의식 환자의 체위변경 때문에 허리디스크도 흔합니다.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각종 감염에 노출되어 있지만, 병원에서는 간병노동자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예방교육,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유통서비스 노동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계산대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서 방광염에 걸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서서 일해야 해서 하지 정맥류나 무릎관절염, 허리디스크에 시달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의자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관리자와 고객의 눈치를 보느라 앉지 못합니다.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관리자들이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독한 화학약품을 다루면서 피부질환과 생리불순, 유산, 불임, 기형아 출산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과 억압적인 조직 문화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방해공작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작업환경을 바꾸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산재 인정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한 여성노동자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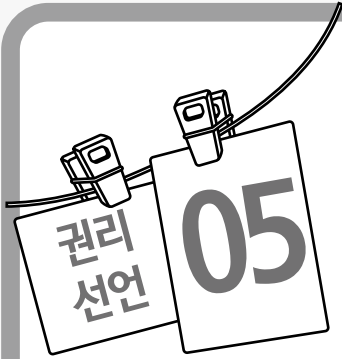
버지는 “노조만 있었어도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려면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간병노동자는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병원의 직접고용을 통해 3교대, 하루 8시간 근무로도 생활임금을 보장받고, 환자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서비스 노동자와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많은 노동



자가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한목소리로 투쟁할 때 가능합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 여성노동자는 노동자이자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 장시간·저임금, 높은 노동 강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직종과 지역 구분 없이 일터에서 행해지는 인권침해를 너무도 당연시 합니다.

지하철에서 청소하는 여성노동자는 워낙 박봉이라서 끼니로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데, 남성 관리자의 횡포 때문에 그의 도시락까지 접대해야 했습니다. 간병노동자는 간호사, 의사,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게 일상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의 인권침해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보고 싶어서 설치하는 CCTV는 다른 아이는 물론 보육노동자들을 감시하는 장치가 되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 버린 차 접대,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희롱 등 직종을 불

문하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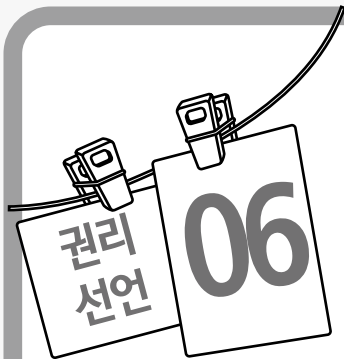
잠깐 상상을 해 봅시다.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라면 어떨까요? 여성이 하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어이 아줌마’, ‘미스리’라고 부르며 정해진 노동 외의 일을 시키며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성의 몸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보거나 어떻게 해 볼 작정으로 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고위 직급이 하위 직급에게, 관리자가 노동자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거부하고 당당히 나의 존엄성을 되찾으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부당하다고 생각해 온 일, 표현하고 싶었던 많은 얘기를 용기 있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낼 수 있는 주춧돌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벌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최저임금 인상 투쟁, 사업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철폐 운동, 병원에서 간병노동자 직접고용 및 의료인 인정 등 현재 여성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벌여내고 있는 모든 투쟁들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라고 무시하던 관리자도 노동조합이라는 이름 앞에 서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의 모든 여성노동자가 떳떳하게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현장에서 인  
간다운 대접을 받는 그 날까지 하나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  
찾아갑시다.





##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의 자유를 가지며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 여성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일까요? 여성들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은 임신을 하기까지도 너무나 많은 방해물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여성 동료끼리 임신 순번을 정하기도 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임신이 아예 되지 않거나, 심한 경우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들게 임신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집이랑 가까우면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은 보육시설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할머니가 아이들을 기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하면 결국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아

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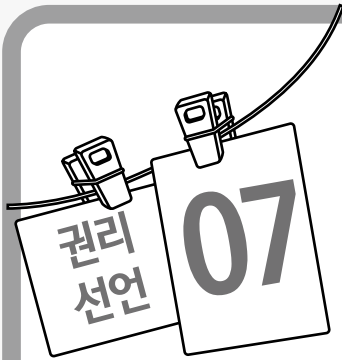
임신과 출산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혼자 감내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며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성노동자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것은 집안일과 직장일 모두를 여성이 책임질 것을 강요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집에서 가깝고 저렴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민간 보육시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은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아 육아휴직을 꿈도 꾸지 못하



는 것이 현실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낙태를 불법화합니다. 출산율이 높을 때에는 낙태를 합법화하다가 출산율이 낮아지니 낙태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여성의 몸을 아이 낳는 기계로 여겨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작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저출산이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고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임신, 출산, 양육을 하고 싶은 여성도 있고 하기 싫은 여성도 있습니다. 좋은 사회는 각자의 뜻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임신 하고 싶은 여성은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여성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가 임신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몰아가며, 여성노동자 개인이 더 열심히 일하고 양육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은 부당합니다. 여성노동자는 철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혼자 고생하면서 임신, 출산,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출산 보육을 사회가 책임지게 합시다. 또한 출산을 이유로 잘리지 않을 안정적인 일자리와 아이를 양육하기 충분한 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뭉치고 대표할 권리가 있다

여성들은 스스로 뭉치고 대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성들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나서려고 하면 ‘여자가 무슨 노조냐’,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무시하는 얘기를 무수히 듣게 됩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야 하듯이 직장에서도 사장과 관리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노동조합 할라치면 드센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방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여성이 하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부당한 현실에 이대로 순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정말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한국에서 민주노조의 시작을 알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아들 학교 보내야 한다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열두 시간이 넘게 죽어라 일하면서도 공순이라고 무시당하던 여성들입니다. 군사독재라는 엄혹한 시절에 누구 하나 올바른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지만, 용감하게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저항한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바뀌어나가는 데 여성들은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이랜드 홈에버에서 계산을 담당하던 여성들은 자신을 헌신짝처럼 해고하는 데 맞섰습니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끈질기게 우기는 재능교육에 맞서 여성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유령으로 취급받던 청소노동자들은 당당한 노동자로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곳곳에서



꾸준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간병노동자, 요양보호사, 학교급식 조리원, 학교비정규직 등 여성노동자들이 단결 투쟁하기 위해 뭉치고 있습니다.

자본은 온갖 불법과 저임금을 강요하며 여성을 착취하면서도, ‘여자니까 저항도 못하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해고를 빌미로 겁만 쥐도 덜덜 떨며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여성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생각하는 자본을 그냥 뒤서는 안 됩니다.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혼쫌을 내주겠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나이 많은 아줌마라서 조직화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졌던 청소노동자들이 편견을 깨뜨리고 노동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학교에 권리를 요구했고, 주변 동료들을 조직하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동네를 누비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또 불법파견과 해고에 맞서 싸웠던 기흥전자 여성노동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1,895일 만에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이 뭉치면 위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여자인까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지경인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단결해서 권리를 쟁취합시다.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잡담회〉

현장스케치



지난 11월 29일 서울여성조합원대회 사전 행사로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잡담회가 열렸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살던 노동자들이 모여 한 판 수다를 떨어보자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청소노동자, 보육교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연맹의 청소노동자, 공공노조 의료연대의 간병 노동자, 건설연맹의 건설노동자, 전교조의 초등교사, 공무원노조의 여성노동자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 30여 명의 여성이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먼저 맞는 매가 낫다며 앞다투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던 자리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생동감 있는 공감의 자리로 변해갔다.

- 나 여성노동자는 정규직화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비정규직이 힘들다. 정규직을 원한다.
- 나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병원 직원으로서 직접 고용될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탈의실과 휴게공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내 생각을 말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차 접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나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와 같은 대우, 같은 임금을 받고 싶다.

나 여성노동자는 불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일한 만큼의 대가(수당)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며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며 일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당당하게 가사노동을 분담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성적 욕구를 먼저 말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옳은 말 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생리대 무상공급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쉬면서 (감시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가진다.  
나 여성노동자는 고용보장을 원한다.  
나 여성노동자는 도시락 접대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와 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정규직화와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느끼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저임금에 허덕이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생활임금을 받는 것이 절실한 요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노동자 집단교섭 투쟁에서 유행했던 말, 용역업체 빼고 원청과 노동자가 직접 ‘직거래’하자는 말이 다시금 와 닿는 순간이었다. 동덕여대의 청소노동자는 직접고용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구인 만큼 생취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맞붙어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다듬었다.

여성의 다양한 권리 중에서 성에 대한 권리 역시 빠질 수 없다. 두산초등학교 교사가 ‘나 여성노동자는 성적 욕구를 먼저 말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발언한 후에 토론이 이어졌다. 그녀는 한국에서 여자가 당연히 성에 대해 밝혀서는 안 되고, 남자가 먼저 다가오면 마지못해 받아주는 것이女子的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성도 성적 욕구의 주체인데 단순히 성욕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참석한 여성들 역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며 공감을 표했다.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반면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어차피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나야’라는 얘기도 있었다. 상반된 의견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면서 결혼이 여성노동자에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여성의 결혼과 임신, 출산

은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안임에도 노동자운동 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앞으로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획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성희롱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여성을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기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여성노동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20대든 50대든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인 일이다. 관리자나 직장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심지어 노동조합 내에서의 성폭력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서 참석자들이 거친 말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이야기였다. 자신의 도시락을 싸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관리자의 도시락까지 싸오길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분노 서린 말과 욕이 쏟아졌다. ‘아우 나쁜 놈들’, ‘남자들은 어디서나 보필받으려 한다니까’, ‘그런 건 거부해야지! 혼자 못하면 노동조합에서 해결해야지!’ 다행히도 그 문제는 얼마 전 여성연맹의 대응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여성에게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노동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성적인 요구까지 하는 남성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다. 지하철 청소노동자가 거둔 작은 승리는 참석자들에게의 마음 한켠을 후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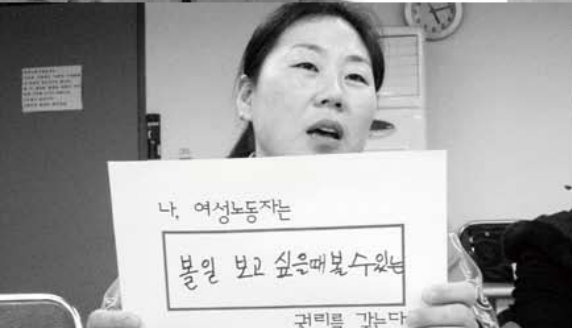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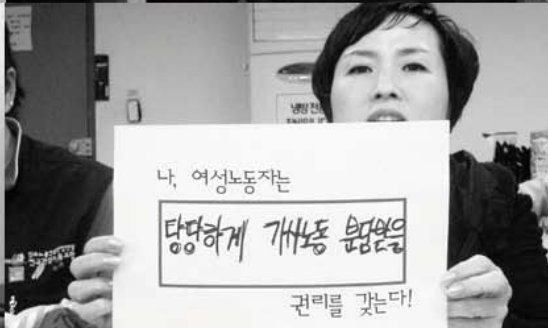
하며 그런 일을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했다.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참석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도 했다. 간병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서 감염환자의 바늘에 찔려도 산재도 못 받고, 본인이 약값과 치료비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병원 직원으로 직접고용 될 권리’를 주장했다. 보육노동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지켜지지 않아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영유아를 1인당 5명에서 7명까지 봐야 하는 현실, 수업 준비를 위해 일찍 나와 늦게 퇴근하는 현실을 토로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키며 행복하게 일할 권리’와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며 일할 권리’를 말했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자신의 업무 외에도 교장이나 손님에게 차를 타서 대접해야 한다며 ‘차 접대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했고,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노동자는 의자 하나만 달랑 있는 타워크레인에서 소변도 보



지 못하고 생리대를 교체하지도 못한다며 ‘볼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권리’를 얻고자 했다.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없어 방광염이나 치질에 시달리는 상황이라 화장실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건설노동자의 말에 “우리는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일해”라고 대학 청소노동자가 받아치자 참석자들 모두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같은 여성 조합원들이지만 서로의 처지를 잘 모르거나 남의 일로만 여겨왔는데, 집담회 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독려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노동자들 모두는 자신의 삶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고 했다. 이전에는 직장 상사나 조장과 반장, 교장선생님 등 높은 사람의 말에 대꾸도 하지 못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이 권력과 고용문제에 가로막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다시 태어난 느낌을 얻기도 한다. 노동조합이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으나, 여성노동자에게 또 다른 힘을 안겨주는 희망임은 분명하다. 여성노동자 권리 찾기 집담회는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각자의 권리를 모두의 권리로 모으는 자리였다. 또 여성노동자의 더 나은 삶과 노동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자리기도 했다. 그녀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서울여성조합원대회에서 만나 반가움을 표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여성조합원대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여성노동자와의 한 걸음을 준비하리라 본다.



##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중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요한 가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